

Vol.
39

2023. 05.
국방시설
소식지

GREAT Engineer!

국방시설본부
Defense Installations Agency

VISION HOUSE

미션

항상 더 높은 가치의 군 시설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군의 미래를 건설한다

비전

고객의 만족과 발전을 창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 시설전문조직

슬로건

GREAT Engineer!

핵심 가치 (행동강령)

Global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 획득

Relation-oriented

고객과 협력적·발전적 관계 형성

Excellent

탁월한 직무수행, 소통능력 배양

Advanced

앞선 생각, 열정적인 실천 지향

Transparency & Trust

투명한 사업관리, 업무수행 신뢰 실현

3P 인재상

Partner
(동반자)

Professional
(전문가)

Pioneer
(선구자)

지휘관 동정	05
국방시설본부 소식	06 각 지역시설단 주요 활동사항
국방시설 제언	<p>12 2023년 변화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중점방향 건설/시설안전과 6급 장정호</p> <p>15 BTL 관리운영권 만료사업 시설인수·운영 준비 민자사업과 중령 손명의</p> <p>20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군(軍) 건설공사 활용방안 제시 경기북부시설단 소령 손유진</p> <p>25 국방시설본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챗GPT</p>
시설사 기고	<p>28 ‘전투형 강군’ 軍 체질 변혁 추진방향 기획조정과 중령 박철범</p> <p>30 챗 GPT가 불러올 시설사업의 변화를 상상하다! 기획조정과 소령 최성일</p> <p>35 SOFA 및 공여재산관리 업무를 시작하며 국유재산과 6급 박용현</p> <p>37 신입장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 경기북부시설단 중위 안형호</p> <p>39 조직의 성장과 개인 성장의 동반 전략 경기남부시설단 5급 서원희</p> <p>43 MZ세대 간부를 위한 슬기로운 공사감독 생활(A to Z) 강원시설단 소령 탁성근</p>
책 읽는 시설사	<p>46 『내 마음을 안아주는 명상 연습』을 읽고 경기북부시설단 9급 최수아</p> <p>48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을 읽고 충청시설단 9급 이지혜</p> <p>50 『마음의 온도』를 읽고 강원시설단 중위 김민규</p>



주요
부대활동



지역시설단 초도 순시
(2023. 1. 11. ~ 1. 19.)



2023년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체 간담회
(2023. 1. 31.)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방문
(2023. 2. 6.)



현장 안전지도
(2023. 3. 7.)



2023년 우수업체 감사패 수여식
(2023. 3. 9.)



2022년 국방기관업무평가 우수부대 선정 기념
(2023. 3. 30.)

경기북부시설단



신년 결의대회

(2023. 1. 2.)

계묘년 새해를 맞아 고품질 군사시설 건설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결의대회를 통해 새해에도 사용부대의 만족과 청렴한 시설업무를 목표로 정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2023년 공사감독관 동계집체교육

(2023. 1. 25. ~ 1. 31.)

단은 전 공사감독관을 대상으로 단 동계집체교육을 실시하였다. 시설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대원이 교관이 되어 공사감독 지식과 노하우를 교육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관사 신축 공사 현장 지도

(2023. 3. 7.)

3사단 철원관사 신축 현장을 대상으로 시설본부장 현장지도가 있었다. 본부장은 무사고·무재해·사용자 만족 주거시설 건설을 위한 노력과 안전 현장 구현,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전반기 심폐소생술 교육

(2023. 3. 7.)

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임명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반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위기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실습을 진행했다.

신년 결의대회

(2023. 1. 2.)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시설 비리 척결과 고품질 군사시설건설을 위한 결의문을 제창하였고, 부천시 원미공원에 현충탑과 참전유공자기념비에서 우국 충절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시설아카데미 실시

(2023. 2. 1.)

동계집체교육과 연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수도권 지사) 초빙교육을 실시하였다. 건설현장 정책 동향과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법령 및 사고사례 교육으로 공사감독관의 안전분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었다.



CM 관계관 간담회

(2023. 2. 17.)

재착공 준비 기간을 활용해 CM 관계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시설사업의 품질 및 안전 분야 개선 방안과 효율적인 공사관리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토의를 통해 사업추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시설사업 및 국유재산관리계획 설명

(2023. 3. 6.)

사용부대를 대상으로 '2023년 시설사업 및 국유재산관리 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사용부대장과 상호 의사소통을 통하여 업무추진간 제한사항 해소 및 상호 건설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강원시설단



신년 결의대회
(2023. 1. 2.)

2023년 검은 토끼해를 맞이하여 단장 및 건설사업과장 주관으로 ‘고품질 군사시설 건설’ 및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 ‘사용자 만족도 향상’, ‘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자격증 취득자 상장 수여
(2023. 1. 26.)

강원시설단은 2022년부터 감독관들의 현장 안전관리 및 감독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취득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자들에게는 단장이 상장과 위로휴가(1일)를 부여하여 격려하였다.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 간담회
(2023. 2. 16.)

단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기술인과 설계·건설사업과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급공사 중대 재해’에 대한 발주자 의무사항, 안전관리자 법령 개정과 시행 등에 대해 안내하고, 사업추진 간 애로 및 건의사항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안전관리원 초빙강연
(2023. 3. 3.)

단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초빙하여, 설계과와 건설사업과 감독관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연을 했다. 향후 국토안전관리원과 사업현장을 합동 점검하고, 스마트 건설안전장비 지원 사업에 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산업재해 근절 대토론회

(2023. 1. 2.)

계묘년을 맞이하여 전 직원 모두가 화합단결의 결의를 다졌다. 오전에 청렴 결의 및 지휘관 사고예방 교육, 산업재해 근절 대토론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현충원 참배를 통해 호국영령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간담회

(2023. 1. 18.)

단장 주관으로 계룡시 한훈기념관에서 2022년 추진 중인 8개 건설사업관리용역사단장과 설계과 및 사업과 주무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2022년 시설사업추진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2023년 설계 및 시공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과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 체결

(2023. 3. 6.)

단은 중부지방산림청과 국방부 소관 국유림의 건전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23년 사용부대 시설사업추진 계획보고

(2023. 1. 19.)

단은 2023년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1월 19일 항공학교를 시작으로 3월 31일 공군사관학교를 끝으로 총 22개 사용부대장에게 시설사업 및 국유재산 관리 계획을 보고하였다.



경상시설단



신년 결의대회

(2023. 1. 2.)

단은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객 만족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고품질 군사시설 건설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용부대가 만족하는 고품질의 공사를 추진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사업추진방향 대토론회

(2023. 1. 5.)

모든 부서가 모여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대토론회를 추진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단이 추진하는 방향을 공유하고, 각 부서의 현실적인 고충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권교육 및 자살사고 예방교육

(2023. 1. 31.)

이번에 실시한 인권교육과 자살사고 예방교육은 인권존중 병영문화를 확산하고,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소통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경상 GREAT 리그 풋살 대회

(2023. 2. 15.)

부서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상 GREAT 리그를 개최하였다. 성별과 나이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부서별 여성 1명, 20대 2명, 50대 1명은 필수 참여로 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2022년 책임운영기관 업무성과평가 수검
(2023. 2. 3.)**

군 책임운영기관 업무성과 평가기관인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원장 등 6명의 평가 위원이 부대를 방문하여 2022년 업무성과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2023년 시설공사 추진계획 토의
(2023. 1. 20. ~ 2. 24.)**

단은 사용부대 중심의 성공적인 시설업무 추진을 위해 전북, 전남, 제주도 각 지역별로 3주간에 걸쳐 26개 시설사용 부대의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설공사 추진계획 토의를 실시하였다.



**동계 공사감독관 집체교육
(2023. 1. 25. ~ 2. 2.)**

단은 국토안전관리원(호남지사)과 협업하여 동계 공사감독관 집체교육을 실시하였다. 집체교육은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강사에 의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점검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현장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호남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2023. 2. 17.)**

단은 호남대학교와 군학(軍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현장의 안전확보와 건설관리에 필요한 최신기술 및 정보 교류를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023년 변화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중점방향

현장중심의 관리, 위험성평가 문화의 정착

건설/시설안전과
6급 장정호



지난 2022년 11월30일에 정부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주요 슬로건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 (0.29⁰/000)으로 감축하는 것을 내세웠다.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1년 사고사망자 828명, 만인율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영국의 1970년대 수준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재 중대재해 규모는 우리 경제적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을 강화하였음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은 8년째 0.4~0.5⁰/00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방시설본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정부와 함께 발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로드맵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는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첫째,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며, 중소기업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둘째,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관리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과 건설·제조업을 위한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지원을 해나가며,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에 대한 현장 중심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스마트 안전 시설·장비 사례

AI 카메라	건설장비 접근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p>시 기반 지능형 CCTV를 통해서 작업장 내 안전상황 파악</p>	<p>감지태그를 부착한 작업자가 장비에 접근 시 경보 및 진동 발생</p>	<p>추락 시 자동으로 에어백이 작동하여 신체주요부위 보호</p>

’22년 軍(국방시설본부) 건설현장 재해사고는(CSI기준) 사고발생 78건(사망 5건 포함)이었으며, 주요 재해공종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해체·비계, 건설기계장비였고, 주요 재해유형은 부딪힘(33%), 넘어짐(26%), 떨어짐(21%)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22년 안전점검(81개 사업)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주요 미흡사항으로 서류 분야는 일일안전교육, **법정안전교육** 및 작업환경측정, 미흡공종(현장)은 **가설구조물**, 철근·콘크리트, 건설기계장비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군 건설공사 또한 발생하는 재해사고의 공종이나 유형이 일반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형태와 거의 동일한 사항이었음을 나타낸다.

그렇기에 국방시설본부 건설/시설안전과는 2023년 안전점검 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모든 軍 건설현장이 이를 통해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먼저, 행정서류 점검에서 **발주자 의무이행 및 현장점검 위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다.**

과년도 주요 미흡분야(일일안전교육 등) 서류점검은 지속하며, 실시점검 전 건설공사발주자(설계/시공단계 통합) 의무사항을 우선 확인하고, 간편 점검 체크리스트 OPS(One Point Sheet)로 현장을 점검하겠다.

그다음으로, 재해 발생 빈도/강도가 높은 **위험공종 집중점검을 실시하겠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OPS

첨부 #1 | **건설공사발주자 의무사항 확인 / 1급알대 급식창고 신축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6건]

결과 : 양호(○), 미흡(△), 해당없음(/)

관련조항	발주자 의무사항 내용	결과	세부내용
법 제67조	• 안전보건관리대책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총금액 50억원 이상) • 기본/실제/공사 안전보건대책 작성/확인 • 안전보건대책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확인 • 실제/시공 간 비용과 기간 개성/실정 •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확인(3개월마다)	△	기본안전보건대책 미작성
법 제68조	• 안전보건조성과 선임 또는 지정 후 동보 (총금액 50억원 이상)	○	지정 (복합건설사업관리기술자)
법 제69조	•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 금지 (불가항력, 위중돌발 등외의 공법변경)	○	-
법 제70조	•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불가항력, 발주자 책임의 화공지연/시공중단 시)	△	공기연장 검토 중
법 제71조	• (산재발생 위험에 대한) 설계변경	○	요청사실 없음
법 제72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성	○	1.97%

□ 건설기술진흥법 의무사항 [6건]

관련조항	발주자 의무사항 내용	결과	세부내용
영 제75조의 2	• 설계안전점검표 심사 및 승인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 건설기(역)안 해당시 제외)	○	-
영 제98조 국토부 고시 (안전관리업무규정 제11조)	•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및 승인 (결과, 건설안전점검기준, 1종은 국토안전관리원)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비용 반영	△	승인서 미발급
영 제101조의 2 규칙 제60조	• 안전관리비 개성 및 증액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 •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동행안전/요청소통을 위한 사설/신호수 비용 •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필요 시 증액 개성	△	공사 간 기본도로 지속사용 해아림 (교통신호수 배치 필요)
영 제100조 국토부 고시 (안전관리업무규정 제12조)	•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선정 및 이행 여부 확인 • 정기 안전점검 비용 반영 (공사비 요율방식)	○	-
영 제101조	• 안전점검 중점보고서 확인 및 제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 포함 하위정보책임기간 종료까지 보존)	/	23년 12월 준공 후 제출

참고 #3 | **軍 시설공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양식]**

○사업명 : 1급알대 급식창고 신축공사

결과 : 양호(○), 미흡(△), 해당없음(/)

구분	점검사항	결과	세부내용	
서류 점검	• 건설공사발주자 의무사항 (1)의 준수 여부 (첨부 #1)	△	공기연장 검토 중	
	• 관리자 및 근로자 법정안전교육	○	-	
	• 자체안전점검(안전관리계획 작성 대상)	○	-	
	• 작업환경 측정(6개월 마다)	△	22년 추방기 미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위험물류 작업 전)	△	규정 미숙지로 미실시	
현장 점검	개인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고리 착용 여부	○	
		• 팔관, 팔목 설치규정 준수 및 침하방지 조치	○	
	시스템 비계	• 비계 수직/수평 상태, 변형/변위, 흔들림 여부	△	접합부 흔들림을 미사용
		• 안전난간(압리베레), 작업발판, 가설계단 설치 상태	△	작업발판 일부 누락
		• 추락방지망 설치 상태(높이 10m이내)	○	-
	이동식 비계	• 벽 연결철을 설치 여부(최소사거리 5m이내)	○	-
		• 자재 등 과다 적재 여부(스프링 400kg 이내)	○	-
		• 전용사다리,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	-
		• 이동리거 설치 등 운용 간 흔들림 방지 조치	○	-
	발판계	• 발 받침 및 난부 추락 방지 장치 설치 여부	○	-
•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연결금고) 등 방호장치 여부		△	추락주어리서 미실시	
위험공종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 여부 확인)	○	-	
	• 위험공종 작업원(가설) 작성 및 승인 여부 (2m 이상 고소, 절단작업, 1.5m이상 들쭉작업)	○	-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	-	
	• 작업계획서 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 승인 여부	○	-	
건설기계 운용	• 건설기계 취급 및 작동명지 조치 (안전표지, 방향표 또는 음향 설치)	/	-	
	• 신호수 배치 및 기계 작업 구간 내 출입통제 여부	○	-	
	• 중량을 인양 시 안전대책 강구 여부	/	-	
기타의견 (점검사항)	• 비계 외부부 가설계단 추가 설치 권장 • 공사진도(30% 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누계(79%)가 과도하여 관리 필요 • 안전관리비(건설비) 내역 상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비용에 대한 증명자료 보완 필요			
주요정사항 【첨부 #2】	구분	보완건수	점검결과 조치 요구	
	서류보완	3	① 위험요인 관리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② 보완요청 사항에 대한 자체 개선이행 조치가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현장보완	3	③ 보완요청 사항에 대한 즉각적 후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함 ④ 안전조치 불량으로 사고위험이 높아 고용부 감독요청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군 및 일반 건설공사에서 재해발생률이 높은 가설/철근·콘크리트/건설기계장비(해체, 토공사 및 인양작업) 등의 공종을 위주로 점검하며, 주요 발생 사고유형(추락, 전도, 부딪힘)에 맞춘 점검항목을 구성 및 활용하겠다.

더불어, 현장 내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하겠다.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확인 및 단계적 의무화제도를 안내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중소기업에 대한 공종별 표준모델 제공 및 실시 유도하며, 위험성평가 결과의 月-週-日3단계 공유체계 확산을 강조하고, 안전관리 우수감독관/우수현장 선발로 자발적 행동화를 독려하겠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변화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중점방향에 발맞추어 국방시설본부의 건설/시설안전과는 현장 중심의 관리, 위험성평가 문화의 정착을 통해 '중대재해 zero化'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BTL 관리운영권 만료사업 시설인수·운영 준비

민자사업과
중령 손명익



I. 들어가는 말

『**新성장 4.0 전략**』, 이는 정부의 ‘**민간중심 활력 제고**’ 정책 중 하나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 프로젝트이며, 민간 활력과 산업별 육성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성장전략을 통한 재도약 모멘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기반시설 건설에도 민간투자가 필수적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3년도에는 13조 원 이상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촘촘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자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¹⁾

한편, 민간투자제도가 도입²⁾되어 국민들에게 여러 편익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일부 시설들은 20여 년이 지남에 따라 주무관청이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시점에 도래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설인수·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시설인수·운영을 위한 사전 세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BTL 시설 인수·운영 전 고려해야 할 사항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국방 BTL 시설, 그 간의 성과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

1) 민자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기획재정부, '23. 1. 27.)

2) 1994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고 동 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된 것은 2000년도에 개통된 신공항고속도로가 1호 사업이었다. 국방 BTL 1호 사업은 2005년도에 고시된 공군 총주관사(200세대)이다.

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교육, 국방, 철도, 환경 관련 시설 건설·운영을 위한 사업유형에 BTL 방식이 적용된다.³⁾

국방 BTL 시설사업은 2005년 5월 고시된 공군 총주관사를 시작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2023년 3월 현재 사업 건수로는 기획사업 8건, 고시사업(시공 준비 중) 1건, 시공 중인 사업 5건, 운영·관리 중인 사업 88건으로 총 102건(406개 사업장)의 사업을 관리 중에 있다. 또한, 시설유형으로는 병영시설, 교육시설, 관사, 간부숙소가 있으며, 총 민간투자비는 7조6,992억 원 규모이다. 이처럼 국방 BTL 시설사업은 지속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시공 및 운영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코로나 위기 대응, 군 전력발전 등 재정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재정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국방·군사시설을 지속 확충해 감으로써 장병들의 복무여건뿐만 아니라 군가족의 생활여건을 향상하고, 국가 재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다.

[표 1] 국방 BTL 사업 추진 현황('23. 3월 기준)

구분	사업수(건)	사업장(개소)	총민투비(억 원)	비고
계	102	406	76,992.4	* 시설유형 : 병영시설, 교육시설, 관사, 간부숙소
기획	8	9	5,315	
고시(시공 준비)	1	-	664.4	
시공 중	5	12	2,759	
운영	88	385	68,254	

III. 국방 BTL 시설, 관리운영권 만료 도래

관리운영권이란, BTO 또는 BTL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이라는 물권적 권리를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부여받으며, 실시협약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게 된다. 또한 관리운영의 시작은 경제적, 재무적 관점에서 사업시행법인의 현금흐름(cash flow)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설 건설을 위해 투자한 민간자금을 설정된 운영기간 동안 회수하게 되며, 사업시행자에게는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하여 민간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등 금융의 원천이 된다. 이처럼 민간투자사업은 관리운영권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주무관청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10~30년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며, 국방 BTL 시설사업은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BTL 시설은 제도 도입 후 2017년부터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22년까지 14개 사업⁴⁾이 만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국방 BTL 시설은 최초 2005년 5월

3) 민간투자사업 용어의 이해(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1. 9.)

4) 교육부 교육시설 10개, 지자체·중앙정부의 정보통신시설 4개 사업으로 운영기간이 10년이며, 국방 BTL 시설의 유형(관사, 간부숙소, 병영 등) 및 운영기간(20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 사업 고시를 시작으로 17년이 경과 하면서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렀으며, 2027년 4월에 국방 BTL 1호 사업인 공군 총주관사의 운영종료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만료 시기가 도래하여 2032년경 만료 사업 수가 절정에 달할 것이다.

[표 2] 국방 BTL 사업, 향후 10년 이내 관리운영권 만료사업 현황

연도	만료사업 (건수)	시설유형			사업명
		관사(세대)	병영(동)	숙소(실)	
2026	-	-	-	-	-
2027	1	200	-	-	공군 총주관사
2028	-	-	-	-	-
2029	1	258	-	-	육군 용인관사
2030	3	456	11	93	대방동 관사, 인제병영, 예천관사/병영
2031	14	4,673	67	675	문산관사, 동빙고관사, 진해관사, 화천관사, 포항병영('06), 파주관사, 청원관사/병영, 화천사내병영, 양주병영, 김화관사/병영, 김포병영 등
2032	22	3,989	105	5,059	전곡·포천관사, 안양관사, 광주관사/병영, 흥천병영, 연천병영, 운주·총주관사/병영, 가평·양평병영, 계룡대·자운대관사, 대구병영 등
2033	15	3,622	57	4,998	부산관사, 사천관사/병영, 논산·익산관사, 부산·진주관사/병영, 동해관사/병영, 흥천·인제관사/병영, 용인·성남관사/병영, 양구관사 등

IV. 관리운영권 만료사업 시설 인수·운영 준비

1.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 관련 규정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은 개별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시 필요한 각종 절차, 내용 등 처리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절차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재부 공고, 개정 2015년)에는 사업기간 만료 전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공동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수조치 등을 완료하여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도하고, 주무관청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만료 이후 **시설운영방식**⁵⁾을 선택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으나, 관리이행계획 수립 주체, 수리·보수의 범위, 시설운영 방식별 만료절차, 주무관청 인계 재산의 범위, 협약변경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①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한 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BTO, BTL, BOT, BOO), ② 공개경쟁 방법으로 민간위탁(운영), ③ 주무관청 또는 공공 부분이 관리·운영, ④ 시설의 매각·처분

[표 3] 관리운영권 만료사업 수행

수행시기	관리운영권 만료 (X-4년)	관리운영권 만료 (X-3년)	관리운영권 만료 (X-6월)	★관리운영권 만료일 (X년)
수행내용	공동시설점검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설의 수리·보수 (완료)	시설인계·인수

2. 공동시설점검 시 고려사항

공동시설점검 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기술분야와 재무분야에 대한 공동점검을 고려할 수 있다. 기술분야 점검 시 사전 점검대상 및 범위를 확정하고 공동시설점검표 작성, 시설인수·인계조건, 시설점검방법, 수리·보수 비용분담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무분야 점검 시 운영비 지출 내역 및 성과평가 결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집행 자료 등을 점검하고,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의 활용계획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표 4] 시설점검 및 보수절차(예)



3. 관리이행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관리이행계획이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의2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과 유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무관청의 행정계획을 말한다.

[표 5] 사업추진 방식별 특징

구분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	공개경쟁방법으로 민간위탁(운영)	주무관청 또는 공공부문 운영관리	시설의 매각·처분 등
특징	· 시설재투자 및 운영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반영 · 기존 BTL 사업의 연속, 기능이 유지된 채로 인수	· 협약종료 시점 자산의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어 재투자 불필요 · 운영업무를 민간의 자원 및 전문성 활용 시 유리 (정부의 능력 부족 시)	· 협약종료 시점 자산의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어 재투자 불필요 · 정부 내 운영인력, 예산, 부서 존재/예산 확보 등 서비스 중단 우려 없는 경우	·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 시설 소요 주체 변경

국방 BTL 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더라도 사회기반시설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시설을 유지 운영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① 시설의 내구연한 검토 및 안전진단 수행 등 시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② 시설 규모의 적정성, 운영효율성 등 시설의 기능성 검토, ③ 시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반영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추진 방식은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으며,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을 통하여 시설점검상태와 재정집행의 효율성, 효율적 운영주체 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거나,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관리운영권이 종료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상기능 유지가 가능한 시설을 인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주무관청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수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05년도부터 시작된 국방 BTL 시설 사업 중 어느덧 관리운영권의 만료를 앞두고 있는 사업이 속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민간투자기본계획, 관리운영권 만료사업에 대한 세부요령 및 사례조사를 참고로 하여 시설을 인수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조치사항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시설인수·운영을 위해서는 국방 BTL 시설(관사, 간부숙소, 병영)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시설인수·운영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리운영권 만료사업에 대한 시설점검 및 인수를 위한 전담조직 편성, 그리고 관리운영권 만료 이후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취지가 정부재정의 부담 완화, 민간의 창의, 경영 효율성의 증진,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등이었던 만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민간투자사업제도의 도입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군 충주관사 전경(국방 BTL 1호)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군(軍) 건설공사 활용방안 제시

경기북부시설단
소령 손유진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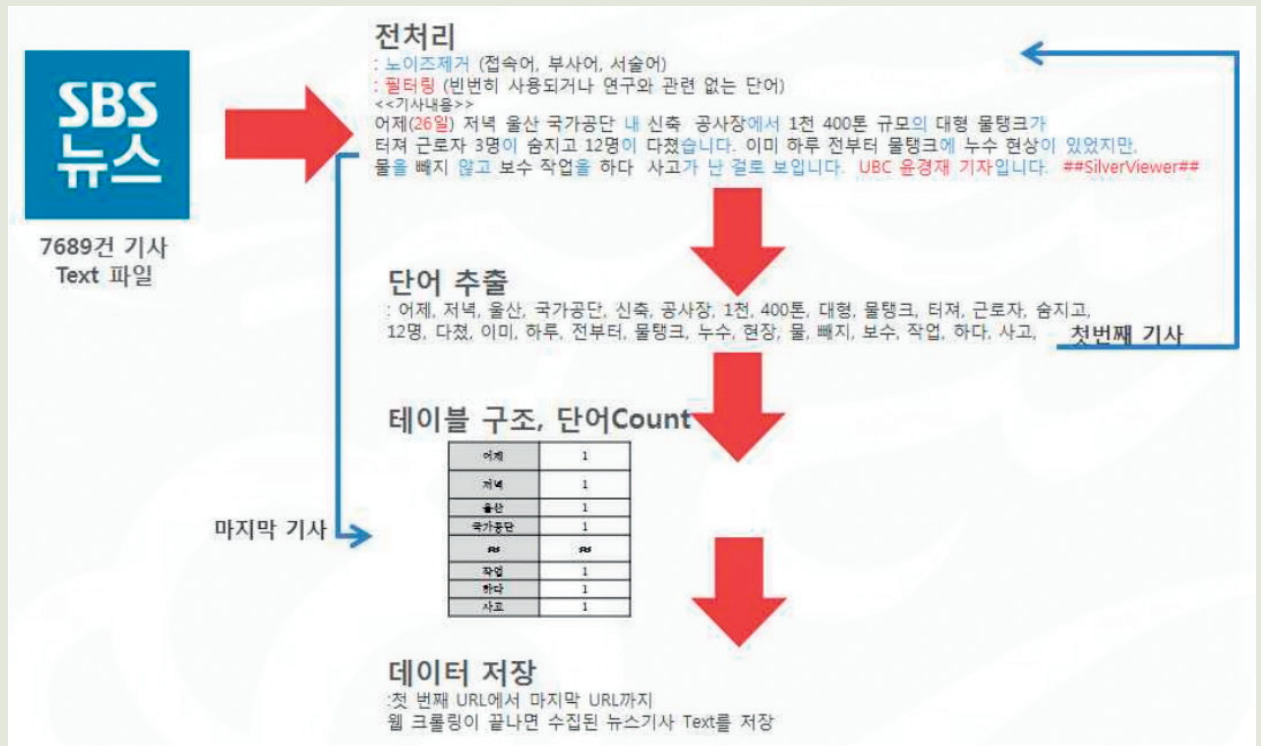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건설산업은 정보기술의 적용이 다른 산업에 비해 늦은 편이다. 현재 건설산업에 3D 스캔, BIM, IoT 등을 적용하는 기업이 있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정보기술인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미래를 예측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빅데이터는 용량, 다양성, 속도의 3차원적인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의 세트를 의미한다. 필요에 의한 형식적이고 의미 있는 단어나 숫자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순환되는 모든 정형 및 비정형의 데이터가 빅데이터로써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용한 상관관계를 분류하고, 미래 실행 가능한 정보 추출을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데이터 마이닝 방법을 건설현장에 활용할 수 있다. 실시간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해분석을 통한 예방방법과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건설현장에서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하는 방법, 건설 사후평가를 통한 관리도 가능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하며, 군 건설사회의 미래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II. 건설현장 재해분석을 통한 건설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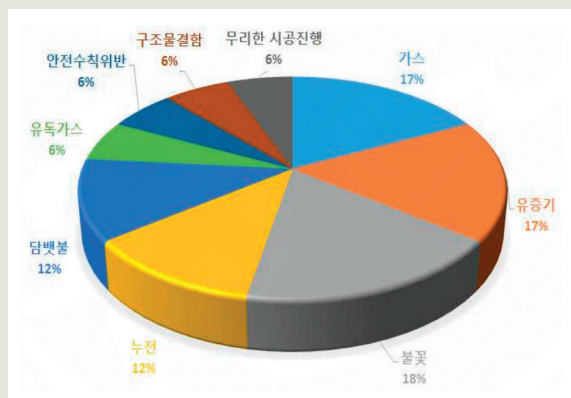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고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여 효과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4단계의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첫 번째, 웹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할 수 있는 모델링을 구축한다. 두 번째, 수집된 정보를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모델링을 구축한다. 세 번째, 많은 데이터 가운데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도출 및 구축한다. 네 번째, 도출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각적 방법과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UI를 설계 및 제안한다.

[그림 1] 전처리 Process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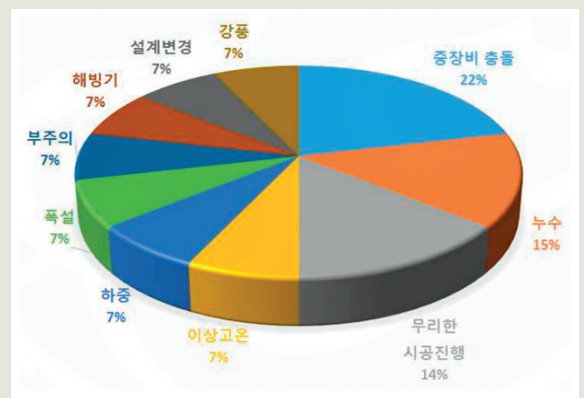


[그림 1]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의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위 과정에서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유형의 경중 도출과 주성분 분석을 통한 계절별 사고유형의 요인 도출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결과 화재, 붕괴, 폭발, 추락, 중장비 사고, 질식 순으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건설현장 화재안전사고 주요인²⁾



[그림 3] 건설현장 붕괴안전사고 주요인³⁾



1)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요인분석('15. 2월), 영남대 건설시스템공학석사논문 “김준수”

2) 빅데이터 기반 건설업 사고재해와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분석, 대한토목학회('22. 6월)

3) 빅데이터 기반 건설업 사고재해와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분석, 대한토목학회('22.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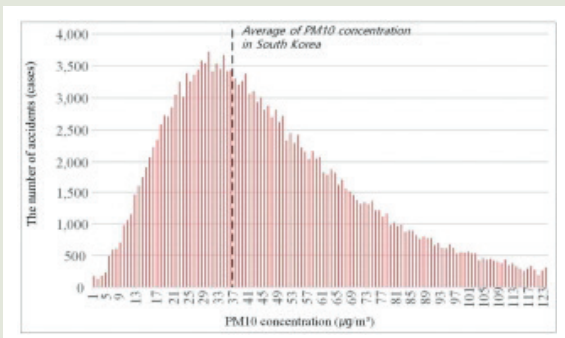
[그림 2] 분석결과를 보면 건설현장 화재 발생 원인으로 가스, 유독가스, 유증기의 담뱃불, 불꽃 접촉의 경우와 누전이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유독가스는 근로자의 질식사고, 무리한 시공진행과 설계변경은 폭발 및 붕괴의 잠재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구조물의 결함과 균열은 화재사고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화성 물질 취급을 주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조물의 결함과 균열을 관리한다면 화재 발생 시 붕괴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림 3] 분석결과를 보면 건설현장의 붕괴 안전사고는 항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붕괴사고는 날씨와 밀접한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겨울철에는 폭설 및 이상고온, 봄철에는 해빙, 여름철에는 누수, 가을철에는 강풍으로 인하여 붕괴사고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장비의 충돌로 인한 구조물의 붕괴가 가장 큰 요인임을 밝혀냈고 무리한 시공과 설계변경은 매몰 사고의 잠재적 요인이라 판단된다. 이에 건설현장의 붕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설, 이상고온, 해빙기, 누수 발생, 강풍이 있을 시 중장비 운용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시공진행과 설계변경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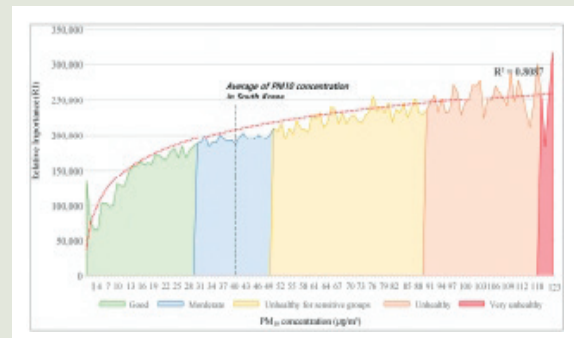
III. 미세먼지 분석을 통한 건설현장 사고예방

건설업은 야외에서 많이 진행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건설 근로자는 야외의 유해 환경요인에 쉽게 노출된다. 최근 탄소배출 제한 등 환경에 대한 정책과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도 환경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건설업의 특성상 작업 도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매우 많다. 국립환경과학원(2018)에 따르면 전체 미세먼지 중 비산먼지로 인해 발생한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47.02%이며, 전체 비산먼지 발생량의 34.86%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 사고재해와 해당 일자별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재해와 미세먼지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4] 미세먼지 농도별 재해발생빈도 분석⁴⁾



[그림 5] 미세먼지 농도별 구간분석⁵⁾



미세먼지의 농도별 전체 건설업 재해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수준인 $32\mu\text{g}/\text{m}^3$ 에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상대빈도 측면에서 미세먼지 농도별 기간과 건설업 전체 사고재해 빈도를 분석한 결과

4)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분석적용('19년 2월)
 5)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분석적용('19년 2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상대빈도 또한 증가하였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그룹에 속하는 $123\mu\text{g}/\text{m}^3$ ($322,909.11\text{RI}$)에서 상대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고재해와 미세먼지 농도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상관계수가 0.846으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건설업 사고 사망 및 사고 부상 재해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건설 재해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건설업에서 보건측면에서만 중점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미세먼지가 건설업 사고재해에도 연관성이 있음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안전관리 측면에서 미세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관리적 측면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사고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사고재해 절감을 위한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건설 사고재해 예방과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와 사고재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현장 관리방안 및 안전관리 대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IV. 건설 사후 분석을 통한 건설공사 사용자만족도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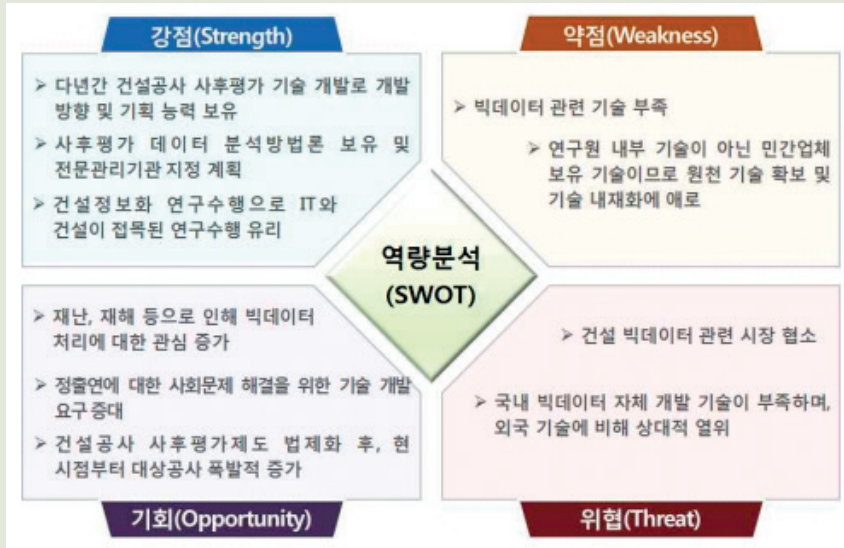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를 통해 방대한 건설공사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었지만, 이에 대한 활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축적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방안으로 빅데이터 컴퓨팅 기술이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지속적인 건설공사 사후평가체계의 전략 방향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로 (1) 공공건설사업 B/C분석 예측 대비 결과의 90% 이상 정합도 유지, (2) 공공건설사업 민원, 하자 Zero화, (3) 중소건설업체 사업실적 30% 향상이 기대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수유·공사비·공사기간·기대효과 및 사업관리 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현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에서는 개별 발주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한 후 사후평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본 시스템에는 건설사업 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많은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지만, 개별 발주청에서는 사후평가 수행실적에 대한 시스템입력의무만 있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빅데이터 개념을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위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종 유의미한 결과를 정책입안자에게 제공하는 등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이다. 반면, 건설 관련 연구기관이므로 빅데이터 등 전산적인 기술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빅데이터 기술력을 보유한 전산 전문기관과 협업을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광주 철거붕괴사태, 지반함몰 등 국가적인 현안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하려는 트렌드를 보이며 연구기관들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현재 400여 건이 넘는 사후평가 결과 데이터가 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빅데이터 개념을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후평가 데이터는 현시점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동향 조사결과, 빅데이터 시장은 보다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상대적으로 건설 빅데이터 관련 시장은 협소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논문동향과 특허동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비교 열위에 있는 것이 위협요인으로 보인다.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 가공하여 공공발주청에 제공함으로써 차후 유사한 사업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궁극적으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적인 SOC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비전의 목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연의 역량(SWOT)을 분석하여 “건설사업 빅데이터를 사전에 정확하게 분석, 제공하여 SOC 예산절감 및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1) 공공건설사업 B/C분석 예측 대비 결과의 90% 이상 정합도 유지, (2) 공공건설사업 민원 및 하자 Zero화, (3) 중소건설업체 사업실적 30% 향상이라는 전략목표를 도출하였다.

[그림 6] 건설공사 사후평가 빅데이터에 대한 건설역량분석(SWOT)⁶⁾



V. 맺음말

최근의 기술 혁신은 내용을 이해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 3D 프린팅, 자율 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등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이때, 건설산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술 혁신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개념에도 새로운 혁신이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다. 빅데이터 기술은 공감개념 혁신의 시기를 맞아 건설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회활동 빅데이터는 건설기업에게 새로이 도래 될 건설시장의 모습과 수요에 대한 힌트를 주어 이에 대응한 사업전략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해줄 수 있다. 또한, 문서 기반 빅데이터는 건설기업의 정보를 축적하고, 지식의 창출 및 공유가 이루어지는 지식경영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빅데이터는 시설물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유지관리, 시공관리 및 조달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빅데이터는 결코 더이상 건설산업과 무관하지 않다. 변화의 흐름이 무관하게 남도록 놔두지도 않을 것이며, 결국 빅데이터는 건설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우리 군 건설현장의 건설 재해를 예측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경험적 근거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 정보를 지원받아 사전에 건설 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빅데이터가 안전한 군 건설현장,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기반이 되어 줄 것이다.

6) 건설공사 사후평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략 방향 “전인수”(2015 대한토목학회)

국방시설본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챗GPT



국방시설본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신 기술과 첨단 시설을 활용한 국방시설 혁신과 효율성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은 국방 분야에서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방시설본부는 최신 기술과 첨단 시설을 도입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방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협력과 연계 강화입니다. 국방시설본부는 국내적으로는 군사적 안보와 행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국제적으로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대외적인 안보와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재해 대응 능력의 강화입니다.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해 등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국방시설본부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자원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빠른 대응과 복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보안 강화입니다. 국방시설은 안전과 보안에 대한 최우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시설본부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보안 시스템과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안 강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인력을 충원하고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향으로, 국방시설본부 내부의 조직 체계 강화가 있습니다. 국방시설본부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내부 조직 구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사이버 공격 및 테러 위협 등과 같은 안보 위협 요소들은 국방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시설본부는 조직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강화하여 안정적인 국방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방시설본부 내부 조직 체계 강화를 통해 인력 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 전문성 높은 인력 유치 및 인력 개발, 업무 프로세스 체계적인 정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 높은 국방시설 관리 전문가를 유치하고, 국방시설본부 내부 교육 및 인력 개발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방시설 관리 인력의 역량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방시설본부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다양한 정보 시스템과 IT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시설본부는 보안과 안정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보 기술 인프라 구축과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국방시설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시설본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최고의 국방 시설 운영 기관으로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국방시설 운영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방시설본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 가능한 운영과 보안 체계 강화, 정보 보호와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 국방 시설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기존의 국방시설본부에서는 불가능했던 첨단기술과 IT 기술의 도입이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방력 확보와 국가안보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시설본부는 전쟁으로부터 대비하는 것뿐 아니라,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 예방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시설 보강이 미래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국방시설본부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발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국방시설본부가 발전해 나가면서,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방시설본부

시설



기고

‘전투형 강군’ 軍 체질 변혁 추진방향

우리 軍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전 이후, 절치부심하며 한동안 ‘전투형 강군’ 육성에 매진하였으나, 이러한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화되면서 점차 퇴조되었다. 특히, 2018년부터 평화를 가장한 북한과의 정상회담과 군사회담, 9·19 군사합의 등으로 인하여 장병 정신적 대비태세도 상당 기간 이완되었다. 현재 북한은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예상범위를 벗어나는 다양한 도발을 지속 감행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우리 軍의 취약점을 지속 식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른 개인·부대별 방역지침 이행 및 야외활동 위축으로 불비한 훈련여건이 길어지고, 적이 없는 형식적 훈련, 매너리즘, 무사안일주의 등이 잔존해 있다. 이에 우리 군은 예하 부대에 부담을 덜어 불필요한 과업은 없애주고, 제대별 각자의 역할과 핵심과제를 식별하여 이에 집중하여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시키고,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중시하는 ‘전투형 강군’으로 軍의 체질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고, 우리 시설본부는 다음과 같은 세부계획으로 이를 적극 실천하려고 한다.

- 1 지휘관 중심의 전투임무위주 부대운영 확립
- 2 敵 도발 시나리오에 입각한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 3 ‘對敵必勝’의 정신전력 극대화
- 4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전투형 군수지원 보장
- 5 전투형 인재 육성을 위한 인사운영 혁신

첫째, 지휘관 중심의 전투임무위주 부대운영 확립이다. 본부 및 시설단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현존전력 배치·운용체계상 취약점을 보완하고, 전투장비·물자·시설의 기능 발휘를 보장하며, 주기적인 전투준비태세 점검을 강화, 부대별 임무 필수과제 수행능력 향상에만 집중하려 한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첫째, 전투준비태세 훈련(반기 1회) 및 평가(연 1회)를 강화하고, 둘째, 본부의 임무 필수과제인 전문지원팀 능력향상을 위해 집체교



기획조정과
중령 박철범

육과 임무수행 점검, 우수팀 선발 등을 통해 기술을 숙달 및 능력을 향상할 것이다.

둘째, 敵 도발 시나리오에 입각한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이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첫째, 전시계획과 각 군과 협조할 사항을 발전시키고, 둘째, 개인화기 사격능력 강화, 셋째, 초급장교를 대상으로 야전부대 체험 및 전술훈련에 동참시킬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각 군의 훈련시설 보강을 위해 첨단과학 기술을 적용한 과학화 훈련장 구축 및 과학화 예비군훈련대 개편사업을 훈련부대와 협업하여 성과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셋째, ‘對敵必勝’의 정신전력 극대화이다. 대적필승의 정신전력 극대화를 위해 정신전력 교육이 전투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다양한 콘텐츠 및 영상자료를 활용한 지휘관주도의 정신전력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피상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북한이탈주민·전문강사 교육 등을 통해 현장감 있게 심층교육을 실시하고, 전쟁기념관, 천안함 기념관, 제2연평해전 전승비, 남침용 땅굴 등 북의 군사적 위협과 대남도발 실태의 정확한 인식을 위한 안보현장 체험학습을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전투형 지속지원 보장이다. 이를 위해 우리 시설본부는 첫째, Army tiger 4.0에 적합한 전투·전투지원시설 기준정립, 이동식 모듈러 시설 개념발전, 미래세대 병영체계 시범사업 및 장병 질향상을 위한 관사 신축지원 등 환경 및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른 시설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북핵 및 미사일 관련 방호시설 발전을 위해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EMP방호시설 유지관리 성능시험을 추진하고, 화생방 방호시설분야에 기술지원을 할 것이다. 셋째, 비행장 콘크리트 포장 설계지침 제정 및 함정 유형별 적정 방충재 선정기준 정립 등 전투장비 특성을 고려한 기준개정을 통해 각 군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본부 자체적으로는 안전점검의 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편제 장비·물자 전수조사와 월 단위 점검 및 정비를 통해 가동률을 향상하고, 주둔지 및 사업현장의 의무지원체계 시스템

을 점검 및 보완시킬 것이다.

다섯째, 전투형 인재 육성을 위한 인사운영 혁신이다. 시설본부는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과거 형평성에 주안을 둔 인사관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우수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자에 대해서 각종 심의간 가점을 부여 및 주요직위에 보직시킬 예정이며, 더불어 각 군에 우수자원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시설본부도 현 상황을 자각하여 국방부의 추진 방향에 발맞추어 ‘전투형 강군’으로의 군 체질 변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본부에서 계획한 실천과제를 세부적으로 추진하여 본부장 중심의 전투임무위주의 부대운영을 확립하고,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및 대적필승의 정신전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국방부 추진방향에 기여하기 위해, 시설본부 측면에서 변화된 군 특성에 맞도록 병영시설을 개선하고, 現안보 상황에 적합한 핵·WMD 및 EMP방호관련 기준을 정립하여 각 군에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국방부의 추진계획을 통해 시설본부를 포함한 전 軍이 전투준비태세 완비,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중시하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시설본부 전 인원이 관심을 가지고 충심으로 동참해 보도록 하자.

시설



기고

챗GPT가 불러올 시설사업의 변화를 상상하다!



기획조정과
소령 최성일

‘이제 막 임관한 강원시설단 최 소위는 오늘도 공사감독을 나간다. 10건의 공사감독과 각기 다른 공종. 확인하고 공부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사전에 현장감독을 위해 준비하지만, 현장에 서면 어느새 머릿속은 다양한 정보들로 뒤죽박죽 엉켜버린다. 하지만 무엇이든 답해주는 든든한 챗GPT가 있어 최 소위는 문제없이 공사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늘도 공사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최 소위의 얼굴에 자신감에 가득 찬 미소가 번진다.’ 챗GPT가 가져올 현장을 짧게 상상해 보았다.

최근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챗GPT라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챗GPT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관심을 끄는 것일까? 챗GPT는 2015년 설립된 오픈AI라는 회사에서, 2022년 11월 30일에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다. ‘인공지능 챗봇?’ 처음 기사를 봤을 때는 그냥 새로운 기술이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많은 기사와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어떤 기술인지 검색해 보았다.

누구나 한 번쯤 인터넷 검색창에 궁금한 사항을 문장으로 물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핵심 키워드가 맞지 않아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할 경우가 많다. 챗GPT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다. ‘챗’은 채팅의 줄임말이고,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어이다. 즉, 채팅인테 사전 훈련된 대량의 정보와 학습을 통해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고, 각종 질문에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형식으로 답변을 제공하다니!’ 너무 놀라 챗GPT를 직접 사용해 보기로 했다.

다음의 그림처럼 실제 챗GPT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보았다. 정말 대화하듯이 답변을 해주는 게 신기했다. 현재 챗GPT의 기술은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MBA, 로스쿨, 의사면허까지 통과하였고, 논문 작성, 번역, 노래 작사·작곡, 코딩 작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성일 국방시설본부는 어떤 일을 해?



국방시설본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주체적인 시설관리와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국방시설본부는 군사시설, 군수시설,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 시설 전반에 대한 건축물과 시설물의 설계, 시공, 유지보수, 관리, 운영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국방시설본부는 국방부 시설의 관리, 운영, 유지보수 등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고 감리를 수행합니다. 또한 국방시설본부는 국방부 내에서 시설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국방부의 여러 부서와 협력하여 국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일 군사시설기준이 뭐야?



군사시설기준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군사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식과 방법을 제시한 기준입니다.



군사시설기준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기능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과 시설물의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에 대한 기술적인 요건을 명시합니다.

군사시설기준에서는 각종 군사시설, 예를 들어 군사기지, 훈련장, 병영, 재해대비시설, 군수시설 등에 대한 기술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준과 규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군사시설기준은 군사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기준이며, 군사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모 신문사에서 챗GPT에게 “앞으로 AI 기술이 건설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와 “건설업에 AI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했다. 챗GPT는 ① 프로젝트 계획 설계 및 시공의 효율성 및 정확성 향상, ② 예측 유지보수, ③ 안전성 향상, ④ 인건비 절감, ⑤ 향상된 지속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앞으로도 건설산업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한국 건설업계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와 숙련된 노동


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는 자동화와 AI 기술의 사용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AI와 다른 선진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몇몇 대형 건설회사들의 본거지다.”라는 답변을 했다. 우리는 아직 AI에 대해 고민하지 않지만, 이미 사회에서는 AI를 통한 건설산업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기술력이 AI 기술의 시작이라고 하니, 챗GPT가 대답한 것처럼 AI는 앞으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당장 떠오른 것은 글 서두에서 언급한 공사감독관이었다. 특히, 지역시설단의 건설사업과에는 이제 막 임관한 현역과 임용된 군무원이 많다. 이들은 공사감독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지만, 여러 현장과 많은 행

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미리 공부하지 못하고 현장감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럴 때 앞으로 챗 GPT를 사용하면 어떨까?

다음의 그림처럼 내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혹은 미리

성일 콘크리트 타설할때 안전조치는 어떻게 해야해?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조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1. 안전장비 준비: 안전모, 안전화, 안전 안경, 안전 장갑, 작업복, 호흡 보호 장비, 고체 입자 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합니다.
2. 안전공간 마련: 타설할 장소에서는 작업 전 반드시 안전한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제된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자와 비작업자 간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3. 고도 작업 시 안전조치: 고도에서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 난간, 안전 띠, 안전 슬링 등의 고도 작업을 위한 안전 조치를 강구합니다.
4. 소화기 준비: 작업장에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5. 보수적인 접근: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보수적인 접근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는 작업자가 미리 타설 지점을 점검하고, 지면이나 인근 구조물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6. 작업 후 정리: 작업이 끝나면 작업장을 청소하고, 안전장비와 도구들을 정리합니다.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수행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성일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감리자가 확인할 것은? ✍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리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콘크리트는 고강도, 내구성 및 내화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 비율과 품질을 가져야 합니다.
2. 형틀 설치: 형틀은 적절한 크기와 모양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과정에서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철근의 위치와 노출: 철근의 위치와 노출 상태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콘크리트의 풀링 및 굴곡: 콘크리트를 부은 후 적절한 풀링과 굴곡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기주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기타 조건: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환경 및 기상 조건, 적절한 보호장비 및 안전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리자가 확인하고 승인을 하면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못했더라도, 표준 지방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한 줄 질문으로 내가 원하는 답



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스스로 조금 더 발전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시스템비계 안전점검 방법을 알려줘

 시스템 비계의 안전 점검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시스템 비계의 전반적인 상태 확인: 비계가 굽어지거나, 들어지거나, 구부러지는 등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접속 부품 및 기구 상태 확인: 접속 부품이나 기구가 파손되었거나 변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대형 건물의 경우 높이 측정: 대형 건물의 경우 비계의 높이가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지 측정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점검 일지 작성: 안전 점검을 마친 후 점검 일지를 작성하여 추후 비계의 상태 변화를 추적합니다.
5. 추가적인 안전 조치: 위의 안전 점검 이외에 추가적인 안전 조치로 비계에 안전띠 설치, 안전 방벽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비계의 안전 점검은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비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사감독관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변경시공을 지시했는데, 유사한 판례를 찾아줘 

 공사감독관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변경시공을 지시한 경우에 대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6고합1498 등 사건

이 사건에서는 건설사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하실 천장보강공사 시공을 지시받았지만,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천장보강공사가 아닌 벽체보강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하주차장 입구 부분에서 바닥이 무너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공사감독관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변경시공을 지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건설사와 공사감독관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사건의 상황과 세부적인 사항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례는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친김에 “챗GPT와 국방군사시설에 적용”이라는 질문을 해 보았다.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다음은 답변의 일부이다. “국방군사시설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며, 안전과 보안에 대한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국방군사시설의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매우 유용하다. 특히, 챗GPT와 같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면 설계, 운영, 유지보수 등 다양한 단계에서 소통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업무 대부분에 AI가 접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계에 AI를 적용해서, “설계도면이 군사시설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분석”이라는 질문을 이해하고 수행할 능력이 된다면, 설계의 오류나 불분명이 감소하여 설계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감독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조치가 줄어들어 감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시설 품질도 향상될 것이다. 물론, AI 기술이 이러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에는 위험도 따라온다. 예를 들면 설계감독관 감원이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이 아니라 호기이다. 감원되는 설계감독관은 공사감독관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현재는 1명의 공사감독관이 많게는 10건의 공사를 감독한다. 또한, 직렬과 관계없이 전 공종을 감독하다 보니, 비전문분야의 공종은 감독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AI 기술이 공사감독관의 공사감독 현장 수를 줄여주고, 이로 인해 해당 전문분야 공사감독을 통해 양질의 국방군사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앞으로 AI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AI 기술을 업무에 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을 잘 활용한다면 나 혼자가 아니라 군과 부대의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들과 함께 국방시설을 이끌어갈 국방시설본부의 밝은 미래상을 그려보면 벌써 가슴이 두근거린다.

시설 사 기고

SOFA 및 공여재산관리 업무를 시작하며



국유재산과
6급 박용현

작년 겨울은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국방시설본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이래 가장 크고 많은 변화가 찾아왔던 시기였다. 2015년 11월에 임용되어 줄곧 경기북부시설단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난해 국방시설본부 공여재산관리 담당으로 보직하게 된 것이다. 승진도 하고, 원하는 보직으로의 이동이라 겹경사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막상 공여재산관리와 SOFA 업무에 맞닥뜨리니 해왔던 일들과는 상이하게 다른 업무와 낯선 용어들에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주한미군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긴장의 연속이었다. 덕분에 처음 군무원이 되었을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무엇이든 부딪히며, 배우자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가장 처음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주요 개념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유재산 업무와 비교적 유사한 공여재산 관리업무보다 생전 처음 접하는 SOFA 업무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가 시급했다. 한 가지 예시로 과거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뉴스 사회면에서 자주 나오던 SOFA라는 용어는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는 SOFA 업무를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다.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란 외국 군대의 법적인 지위 문제를 다루는 국가 간의 협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1966년 한미 SOFA가 체결되게 된 것이다. 실제 한미 SOF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며, 약칭으로는 ‘한미 주한미군 지위협정’, ‘한미 SOFA’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나씩 낯선 개념과 용어들을 이해하는 과정 뒤

에는 공여재산관리업무 담당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한미 SOFA의 어느 영역에서 활약하게 되는 것인지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먼저 SOFA의 운영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국방시설본부가 SOFA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아야 했다. SOFA는 규정 제28조에 따른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합동위원회는 한미 SOFA에 있어 상호 합의가 필요한 모든 사항에 있어 양국 간의 협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합동위원회 산하에는 SOFA 운영개선 특별합동위원회 및 시설과 구역, 형사재판권, 노무, 재무, 환경 등 분야별로 구성된 20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들은 주로 분과 내용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부처의 과장이 분과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국방시설본부는 SOFA 시설과 구역 분과위원회(국방부)로부터 위임된 SOFA 과제의 한측 실무대표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공여 및 반환된 재산에 대한 관리·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우리 국방시설본부의 법적인 설치 근거인 국방시설본부령을 살펴보면 제2조(임무) 조항 내에 SOFA 및 공여재산관리업무가 명시되어 있다.

새 업무를 맡게 되는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과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셨던 선배분들의 발자취도 찾아보았다. 업무를 하며 마주치는 유사한 사례들이 문서등록대장을 찾아보면 대부분 발견된다는 사실이 매번 놀라웠다. 선배들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선배들이 작성한 문서들에는 어려운 사안들이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또 철저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후학들을 위해 훌륭한 실무 지침서까지 제작해놓으신 우리 국방시설본부의 역대 공여재산관리담당 선배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으며, 또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훗날 내가 남겨놓은 문서들도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제 공여재산관리업무를 시작한 지 2개월이 조금 넘었다. 이제 시작이지만 지금까지 겪어온 SOFA 및 공여재

산관리 업무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타국의 대표와 협의를 진행하고, 행정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귀중한 경험이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도 동반되겠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가까운 미래에는 공여재산관리업무 담당이라는 멋진 직책에 맞는 사람이 되어있지 않을까 작게나마 기대하여 본다.

시설



기고

신임장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



경기북부시설단
중위 안형호

2022년 3월 1일부 공병병과로 임관하고, 경기북부시설단에 6개월 정도 복무하며 신임장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소개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신임장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바로 ‘意志(의지)’ ‘無信不立(무신불립)’ ‘리더십’이다. 이 세 가지 자세와 마음가짐을 통해서 느꼈던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1. 意志(의지)

‘의지’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해내거나 이루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나 작용’이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의지’는 신임장교로서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나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면, 동기들과 달리 4년 늦게 임관을 했고,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대학교를 자퇴하기도 하였고, 더 좋은 대학진학을 위하여 재수, 삼수, 사수도 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게 되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해주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모든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다. 신임이니 새로운 환경이 어색하고, 모든 일이 처음이다 보니 서툴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으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고 더 나은 장교로 나아갈 수 있다. 나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다.

2. 無信不立(무신불립)

‘무신불립’이라는 사자성어는 논어의 ‘안연’ 편에서 나온 말로,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뜻으로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 사자성어는 임관하기 전 육군3사관학교 훈육대장님께서 훈육시간에 말씀해주신 사자성어인데, 인상 깊어 아직도 가슴속 깊이 남아있다. 체육대회나 군

사훈련을 받을 때 동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거나, 이겨낼 수 없다. 예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경기를 보면 포르투갈에 호날두라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하나로 푼푼 뭉친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었다. 동료들에 대한 믿음과 의리가 있었기에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신임장교로서 새로운 집단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하나로 뭉쳐질 수 없고, 원하는 성과도 낼 수 없다. 때문에 장교로서 믿음과 의리는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3. 리더십

‘리더십’이란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의미한다. 때문에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임장교 지휘 참모과정간에 KCTC 훈련 때의 일이다. 분대장의 영리한 리더십으로 공격작전간에 아군 1개 분대가 대치 중인 대향군 1개 분대를 전멸시키는 것을 봤다. 그 장면을 보면서 능력을 갖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이 같은 예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모두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들 수 있다. 명량해전을 살펴보면 이순신 장군은 13척으로 일본의 133척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처럼 영리하고 능력을 갖춘 유능한 리더만이 집단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처럼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집단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유능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공병병과의 장교로서 병과 전문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기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과 의리의 중요성을 알려준 무신불립, 장교로서 좋은 조직으로 이끌기 위한 리더십. 위 세 가지의 덕목을 마음에 새기고 임무에 임한다면 인정받는 유능한 장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짧은 군 생활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위의 세 가지 덕목을 항상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임무수행을 해갈 것이다.

어떤 일이든 이루려고 하는 마음인 의지, 관계에서 믿음

시설

사
기
고

조직의 성장과 개인 성장의 동반 전략

조직 미래 가치(Value)와 경력개발 경로
(Career Development Path)



경기남부시설단
5급 서원희

1. 시작하며: 조직의 미래와 나의 미래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다.

자기 계발의 시간을 갖는 동안 깨달은 바를 시설본부 직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조직 생활이 10년 차가 넘었기에 그동안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조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이 익숙한 사람이 되었기에 나를 주체로 조직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뎠어 있었다. 요즘 들어 조직과 나의 관계를 쌍방향적으로 바라봐야 건강한 관계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조직과 나의 상호발전의 연계점을 찾는 것이 나와 조직의 WIN-WIN 전략이 될 것이다.

사기업에서는 80~90년대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현재는 평생직업 개념으로 바뀌면서 직장과는 한 몸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라는 의식이 퍼져가고 있다고 한다. MZ세대¹⁾는 조직과 개인에 대해 이전 세대보다 더 실용적인 가치관이 있을 것이다. 개인의 성장을 중시 여기는 세대는 이러한 동반성장 욕구가 과거 세대보다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세상의 변화, 그리고 조직의 변화를 나의 안정적이고 고정된 가치관 탓으로 그 흐름을 읽지 못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인성, 일을 대하는 태도의 진정성은 변하면 안된다. 조직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면 나 역시 안주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쌍방 관계에서 내가 안주한다면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의 미래 역시 멈추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미래상과 조직의 미래상을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우리의 관계를 논해야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 MZ세대는 1980년부터 2004년생까지를 일컫는 밀레니얼(M) 세대와 1995년부터 2004년 출생자를 뜻하는 Z세대를 합쳐 일컫는 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MZ세대는 2019년 기준 약 1700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한다.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민감하며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한다. 특히 SNS 활용에 능숙한 MZ세대는 유통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에듀윌 시사상식 참고).

II. 조직과 개인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²⁾

사기업에서는 시대의 흐름, 시장의 흐름, 소비자의 흐름을 이해하고 마케팅, 생산에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생존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인재(Human resource)이다. 예를 들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라는 인물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이 한 인물로 인해 일본의 전자산업을 붕괴시키고 모든 IT 사업의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지고 온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의 지원도 대기업의 R&D 투자도 아닌 주차장에서 동업자 1명과 시작한 애플이라는 자그만 회사가 세계를 제패하는 기업이 된 것이다.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애플 창업 당시 등록금이 없어서 다니던 대학을 자퇴한 상태였고, 이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벤처기업을 시작했다. 개인의 터닝포인트(Turning point)가 조직과 국가의 터닝포인트(Turning point)가 된 것이다. 반대로 조직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잘못되어서 망하는 것도 개인의 결정으로 말미암은 경우가 많다. CEO의 독단적 결정이나 시대에 역행하는 경영으로 잘 나가던 사업을 망가뜨려 회생 불가하게 만든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한때 전자제품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던 일본의 소니(Sony)가 기존 전자제품에 너무 다양한 기능을 위한 투자와 개발을 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았다. 그동안 삼성과 LG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LED 디스플레이어로 승부를 걸며 제품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과감한 선택하게 되면서 밀레니엄 시대 전자시장의 사활을 건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90년대 경영진의 과감한 의사결정과 시대를 읽은 선견지명(先見之明)이 두 나라의 전자제품 시장의 흥망을 결정한 것이다. 90년대를 지나 밀레니엄 시대에 삼성과 LG는 일본의 소니(Sony)와 파나소닉

(Panasonic)이라는 거대 일본 기업을 가볍게 따돌리며 세계시장에서 단연 최고의 자리를 누리게 된 것도 산업변화를 읽고 과감한 투자를 이끈 경영진의 의사결정 덕분일 것이다.

무엇이 이러한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 이후의 기업의 갈림길을 만들어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것을 이끌어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Steve Jobs) 같은 인물일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를 잘 인지하고 시장의 변화에 흐름에 대응한 삼성이나 LG 같은 후속 주자의 경영진일 것이고 세 번째는 기존 방식을 고집하다 시장에서 대거 정리된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의 경영진일 것이다. 이러한 커다란 세계와 기술, 기업들간의 경쟁뿐 아니라 나와 나를 둘러싼 조직도 마찬가지다. 개인과 조직(회사)의 방향, 한 국가의 경제 부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개인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조직 생사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될 수도 있다. 잘못된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는 한 개인뿐 아니라 조직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나 의사결정이 몇백, 몇천 명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사례는 사기업의 예이다. 국가 조직의 경우 운영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개인의 의사결정이 조직의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생각한다.

III. 조직의 원하는 역량(Capacity)과 나의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 연계의 필요성

David C. McClelland에 의하면 역량(Capacity)이란 실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동 특성을 말한다. 역량(Capacity)은 개인의 지식, 기술, 가치관, 태도를 아우르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과거처럼 입학성적이나,

2) 조직이 창업 이후 성장기를 지나 성장이 둔화되면서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쇠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점을 변곡점(Turning point)이라고 하고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IQ로 우수한 사람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현된 행동이 조직에서 성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행동양식, 즉 실행력이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는 의미이다.

경력관리제도(Career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란 조직의 인재 양성의 필요성과 본인의 희망을 조화시켜 장기적인 경력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과 결부시켜 직무 로테이션(승인, 부서이동, 직무변동 등)과 교육 훈련을 결합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말한다³⁾. 미국은 1957년 ‘미국 육군 문관의 경력관리 프로그램(Army Civilian Career Program)’으로 구체적인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현재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러한 경력관리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경력개발 제도는 다양한 직무 경험과 전문성 향상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제도설계에 반영하여 그가 관리직이나 상위직으로 이동하여도 조직에서 장기적으로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하면서도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이동배치를 하여 조직과 개인의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을 도모하는 것이다. 조직과 개인이 동반 발전하고 상생하려면 서로의 방향 설정이 필요한데 경력관리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과 조직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은 조직의 인재상과 조직의 미션(Mission)과 업무목표(Task goals)를 자신의 경력관리에 반영하여 능력발전을 피하면서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조직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다시 스티브 잡스(Steve Jobs)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스티브 잡스는 그의 나의 30세에 애플의 창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정으로 애플에서 해고된다. 그는 너무 창피해서 실리콘 벨리에서 도망칠까도 생각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은 애플을 떠난 이후에도 변함없다는 것을 깨

달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후 넥스트와 픽사를 설립하여 최초 3D 영화인 토이 스토리를 제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영화 제작사로 성장시켰다. 또한,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하면서 잡스는 애플로 복귀해 적자로 허덕이는 애플을 다시 살리게 되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난 5년 동안 이룩했던 성과는 성공적이었고 만성 적자로 허덕이던 애플에 돌아가 기업을 회생시켰으며 그 뒤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애플의 새 시대를 열게 되었다. 스티브 잡스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와 애플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에 집중하였고 돈을 버는 것은 그 후순위였습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아이디어 관점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직원들의 자부심과 의지가 오늘의 애플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Steve Jobs)의 이러한 생각은 바로 애플의 비전이 되었으며 애플의 조직원은 이러한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인제는 조직을 살릴 수도 회생시킬 수도 있다. 물론 스티브 잡스(Steve Jobs)라는 시대를 풍미한 천재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잡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생전 애플의 성공을 각 부문별 팀의 협력과 전문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일에 대한 의사소통, 팀간 의사소통, 경영진과 실무진의 의사소통과 자신의 일에 대한 고집스러운 정도로 완벽성을 추구하는 실무진들의 전문성이 애플 경영의 기본이라고 평가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난 5년 이후 복귀는 더 많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애플에 이식하는 기회를 주었고 그 뒤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혁신적인 제품이 생산되었다. 개인의 경력은 조직 내·외적으로 흐르면서 발전하였고 결국 조직에 그 경험과 능력이 전이되어 조직을 회생시켰다.

3) HRM 전문가 교재(한국노무사 협회 공저) 참고

IV. 결어

미래의 나의 능력과 조직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경력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기본이 되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자격증이나 학위 공부 그 어떤 것이라도 미래에 나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이 조직의 인사부서와 직장 상사와의 상담과 소통을 통해 내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갖고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 어떤 경력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를 조직의 업무와 어떻게 연결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등에 대해 상담하고 소통하여 이러한 결과가 경력관리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좋아한다. 그 노래 가사 중에서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내가 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당신은 나를 성장시켜 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사가 조직과 나와 가장 최상의 관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요점이다.

시설



기고

MZ세대 간부를 위한 슬기로운 공사감독 생활 (A to Z)



강원시설단
소령 탁성근

2005년 7월 7일 37사단 공병대대에서 소대장을 시작으로 2022년 9월 28일 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전입까지 11번 부대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부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부대를 옮긴다는 것은 새로운 부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부대를 찾아가는 주소에서부터 식사하는 장소 등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하나하나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며, 인증서 설치, TACS 가입 등 군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하사, 소위, 9급 군무원 등 초급 및 전입간부들에게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다.

우리 강원시설단에는 군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하사, 소위, 9급/7급 군무원 포함하여 20대 연령층을 말하는 MZ세대¹⁾ 43명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이 짧은 적응기간과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강원시설단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공사감독관이 부대생활을 조기에 적응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MZ세대 간부를 위한 슬기로운 공사감독 생활(A to Z)』(이하 “슬기로운 공사감독 생활”)을 2021년 6월 발간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2022년 11월 개정을 통해 초급간부 및 전입간부에게 전입신고시 책자로 배부하고 전입간부 집체교육시에도 별도의 교육자료를 만들지 않고 본 참고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슬기로운 공사감독 생활』의 구성은 전 간부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대생활 첫 걸음』을 시작으로 시설단 주요임무인 시설공사의 『착공 전 확인사항』, 『시공단계 확인사항』, 『준공단계 확인사항』, 『예산 및 계약업무』까지 문답식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슬기로운 공사감독 생활』은 시설본부 『공사감독 실무

1) MZ세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해당하는 밀레니엄세대(M세대)와 10대 초반~20대 중반에 해당하는 Z세대를 묶어 부르는 신조어이다. 다만 현재는 그 의미가 달라져 20대 젊은 사회인들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

편람』 및 『준공검사 가이드북』, 『예산회계 실무기준』 등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초급 및 전입간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2022년 11월 자료를 최신화 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작업허가제, 공사현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등 간부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관련법규(법령) 등에 대하여 추가 반영하였다.

제1장에는 강원시설단에 전입은 간부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시설본부와 시설단, 각과의 임무 및 조직구성, 전입 시 준비사항, 간부숙소 신청, 출·퇴근 시간과 이동수단, 식사 장소 및 금액지급, 군사보안 기초상식, 온나라 계정 신청 및 통합인증서 발급 방법, 감독관 명령 신청 절차뿐만 아니라 전입간부 체크리스트까지 포함하여 전입간부가 본인이 조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수록되어 있다.

제2장에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착공 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설계기본요구조건, 설계토의, PMIS²⁾ 등 배경 지식과 공사 착수단계 조치 및 준비사항, 착공 전 협력회

의 준비 및 진행방법, 공사협력관과 협조할 사항, 설계 도서 오류 확인 시 조치방법, 철거공사 준비, 민간인 출입 및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수록되어 있다.

제3장에는 시공단계에 가장 중요한 공정표 확인 및 부진공정 관리 방법, 공기연장 기준과 준비서류, 품질관리 계획 대상, 품질시험 및 검사, 검측 절차 및 방법, 자재 검수 및 불합격 자재 조치, 안전관리비 감독관 확인사항, 환경보전비 사용방법, 하도급 서류 적정성 검토방법, 불법 하도급 방지대책, 설계변경 심의 절차 등에 대하여 수록되어 있다.

제4장에는 준공(기성) 검사 절차와 필요한 서류, 준공서류 중 원가계산서 서류 검토하는 방법, 시설물 및 준공서류 인계, 하자보수 보증서 확인 방법과 PMIS에 하자보증 등록방법, 사용승인, 자산화 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5장에는 예산 신속집행 및 이·불용 최소화 목적과 진행방법, 연부액 조정, 임금직접지급제, 지체상금 면제 사항, 예산 프로그램과 세목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구분	내용
1장 부대생활 첫 걸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본부/강원시설단/각 부서 임무 및 역할, 조직구성 · 전입 시 준비사항, 간부숙소 신청 · 업무 시작전/사용부대에 대하여 알아야 할 사항
2장 착공 전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기본요구조건, 설계토의, PMIS 등 주요 용어 설명 · 공사감독 준비, 철거공사, 민간인 출입 및 보안조치 등 확인사항
3장 시공단계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품질/안전/환경/하도급관리 주요 내용 · 설계변경/기술검토 설명, 설계변경 심의 준비사항 및 절차
4장 준공단계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검사/하자관리/준공재산관리 절차 및 주요 내용
5장 예산 및 계약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집행/예산 이불용 목적 및 진행방법 등 예산집행 내용 · 시설공사 계약 절차, 계약시 적용 단가 등 계약관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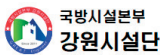
2)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건설사업관리정보시스템): 건설사업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 관리 도구로 계획/조사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준공 단계, 그리고 유지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On-Line상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본 참고서를 처음 받아본 전입간부들은 “누군가에게 계속 물어보기 미안한 것들에 대하여 절차 및 담당자 연락처까지 적혀있어 수시로 찾아보고 활용도가 높다.”, “다른 부대에서도 이런 참고서가 있으면 전입간부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대적응 및 공사감독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활용되고 있다.

2023년 1월 1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이 개정되었고, 7월 1일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법령 개정이 수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도 관련 법규(법령) 및 규정 에 대하여 최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강원시설단 홈페이지 - 정보방 - 실무참고 자료에 접속하면 본 참고서 자료뿐만 아니라 강원시설 단에서 제작한 『찾아가는 시리즈(공사협력관/시공업 체/설계업체 안내서)』 등 실무 참고자료들이 탑재되어 있다. 시설본부 많은 간부들이 강원시설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좋은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면 시설 본부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표지	본문 내용
<div style="text-align: right;"> 2021. 6. (1차 개정) 2022. 4. (2차 개정) 2022. 11. </div> <p style="text-align: center;">MZ세대 간부를 위한</p> <p style="text-align: center;">슬기로운 공사감독 생활 (A to Z)</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업무 시작 전 알아야 할 것들</p> <p>1-9. 출·퇴근시간과 이동수당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근시간)은 08:30 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08:30분이 일과 시작시간을 의미하므로 위험소 통과 후 이동 및 환복시간과 개인의 업무 준비시간을 고려하면 된다. • (퇴근시간)은 17:30 이후에 실시하면 된다. 17:30분까지 업무를 수행 후 이후에 사무실 및 위험소를 퇴영한다. 출·퇴근시간은 지역(부대)별 동일하나 이동방법은 여건에 따라 다르다. • (이동수당)은 지역별 상이하나 개인별 차량을 이용한 카풀, 출·퇴근 버스(원주지역), 도보 등을 이용한다. • (원주지역) 미사일사령부 및 51통신대대 출·퇴근버스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일사 : 출근(06:30, 07:30 / 통일아파트), 퇴근 (18:00, 20:00 / 위험소 앞) - 51통신대대 : 출근(07:30 / 통일아파트), 퇴근 (18:00 / 51통신대대 앞) <p>1-10. 식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금액지금은 어떻게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장소)는 부대 내 식당 또는 외부 식당 모두 가능하다. 부대 내 식당은 조·중·석식 모두 정해진 식당에서 식사를 실시하며, 외부 식당은 통상 출장 통신상의 식당을 활용하여 개별 식사를 실시한다. • (부대 내 식사)는 지역별 행정(군수)담당자가 매월 급식 신청인원을 메모보고로 사전 파악¹²⁾한다. 파악된 인원은 군수담당이 군수통합정보체계 시스템에 입력한다. 단 본부(원주사무소)는 미사일사령부 홈페이지 통합예약체계 배너를 활용 2군무원 전까지 개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신청한다 • (식비)는 현역은 월급(급식비)에서 공제되며, 군무원의 경우 급식 운용부대 계좌에 개별 입금한다. 만약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날자에 식사한 경우는 급식비를 소급하여 납부를 해야 한다. 출장간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개인비용으로 매식하면 되겠으며, 출장비 항목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식사 영수증 첨부는 불필요하다. <p style="text-align: center;">* 부대식사 단가 ('22년 기준) : 3,660원 / 끼</p> <p style="text-align: center;"><small>12) 식당 운용부대는 직수인원을 사전 파악하여 부식을 신청하기 위함</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small>90 - 8</small></p>

『내 마음을 안아주는 명상 연습』을 읽고

1. 머리말

나의 오랜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종종 대학 시절 이야기를 나눈다. ‘명상의 이해’라는 대학 교양 과목이 있었는데, 강의 중 스님께서 명상을 하시면 기둥 뒤에 숨어서 졸곤 했다고 친구가 말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며 조는 모습을 하는 친구를 보며 나는 한참을 웃었다. 한편으로 명상을 하였더니 발밑에 존재하는 우주를 보았다고 다른 지인에게 전해 들었다. ‘명상으로 어떻게 우주에 갈 수 있을까...’ 하며 궁금증에 사로잡혔다. 지적 호기심 때문에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시작한 이후로 명상에 대해 고찰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 OTT(Over the top) 서비스에서도 명상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여럿 있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었다. 특히 삶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명상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과거 잠들기 위해 누워있을 때 여러 생각이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와 뒤척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 이후 깨달은 것은 생각이 과거에 있으면 후회하고, 미래에 있으면 불안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현재에 둘 수 있을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그 해결책으로 명상을 찾게 되었다. 이미 필자보다 명상을 더욱 잘 아시며 오랫동안 수행하시는 선배님들도 분명 많으실 테지만, 명상 입문자를 위한 이 도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려 한다.

2. 명상 방법

1) 몸과 마음 이완하기

명상을 시작하기 위해 편한 자세로 앉은 후 눈을 감는다. 그러나 눈을 감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잡념이다. 이 잡념들의 상당수가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삶의 목적부터 작은 물건을 하나 고르는 것,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부정적인 감정까지 오히려 더 많은 생각들로 나를 둘러싼 주위를 채우지 않도록 들숨과 날숨에 집중한다. 처음에 호흡에 집중하기 어렵다면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 하나, 둘 숫자를 매겨 본다.

2) 아픈 마음 받아들이기

좋은 면도, 인정하기 싫은 면도 보고 수용하는 단계로서 이러한 자각이 일어나면 외부에 탓하는 투사를 멈추고 자신과 남을 비난하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한다.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채워지지 않은 욕망에서 기인한다. 해결 방법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좌절시키는 것도 아니다. 명상은 욕구를 관조하라 하고 그 결과 욕구가 절제된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걸 요구하여 왔음을 고요히 바라본다.

3) 명상의 종류

형태는 좌선, 행선, 와선, 음악 명상, 동작 명상, 행복을 빌어주는 자비 명상과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신



경기북부시설단
9급 최수아

의 잘못을 수용하는 용서 명상, 사실의 맥락, 전개 과정을 낱낱이 통찰하는 숙고 명상, 주문을 외우거나 단어, 구절을 반복하는 만트라 명상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명상 방법들은 집중과 관찰 집중을 통해 선정에 이르고, 관찰을 통해 지혜에 이른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3. 맺음말

명상을 꾸준히 하다가 길을 가고 있을 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푸른 하늘은 변함없지만, 구름이나 눈, 비 등으로 하늘은 어두워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푸른 하늘은 고요하게 숨을 쉬는 자아이며, 폭설과 강우 등 변화무쌍한 날씨는 자아와 분리된 외적인 요소들이다.

또한, 도로에서 차량이 지나갈 때도 그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볼 뿐, 도로에 끼어들어 차량 앞을 막아서거나 차량에 탑승하지는 않는다. 이때 차량은 매 순간 변화하는 감정으로 나와 차량의 거리가 멀수록 좋으며, 그저 차량이 도로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야 한다. 스스로가 어떤 감정에 둘러싸여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고, 일시적인 감정과 순간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날씨와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와 같은 요소들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더욱 집중하고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과 후, 외적으로 동일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내적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과 30분~1시간의 긴 영상 중 전자를 선택하여 처음 명상 가이드 영상을 재생하였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한다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생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하나로 꾸준히 집중하려고 노력하였다. 약 2~3주가 지났을 무렵 생각을 비우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때 명상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 심적으로 더욱 여유를 갖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로 인해 바쁘게 시간을 보내곤 했었지만 본래 기상 시간보다 약 5~10분 이르게 기상하여 명상을 시작하였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싶어 시작했던 명상은 더욱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갑작스러우며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발생하였을 때 번잡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호흡에 집중하였다. 외부 상황들과 관계 없이 스스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경험은 명상으로써 가능해졌다.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고 주변 동료와 친구,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특히 우리 시설본부 동료분들의 심신이 피로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이다. 잦은 현장 출장과 많은 민원 업무 등으로 지친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감정이 좋은 방향으로 전이되어 행복하고 즐거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명상을 추천드리고 싶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으신 동료 여러분들께서 평안하시고, 행복을 자주 느끼신다면 좋겠다.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을 읽고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이 쉬운 일인가. 지나간 사랑에 미련을 갖기도 하고, 한 번의 실수에도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며 주변의 평가에 자만하기도, 움츠러들기도 하는 게 보통 사람이다. 누구나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런 말이야 쉽게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비운다는 것에 대해 사유하는 사람은 적으리라 생각한다. 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마음 비웠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도 그러한 일이 나에게 생겼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했다. 이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신경 쓰이는 일들이 생기면 쇼핑을 한다든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며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감정이나 생각을 잊으려곤 했다. 이것이 진정 마음을 비우는 자세일까? 저자의 생각은 달랐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머릿속 가득히 차 있는 생각을 전환하고 비우는 과정이다. 사람은 생각의 존재이고 생각의 무궁무진함은 실로 대단하다. 작은 불안감이 사람을 정신적 궁지로 내몰 만큼 커다랗게 변하기도 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일을 추진하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장밋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루하루 고역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다.

책에는 부정적인 생각의 한 예로 자신의 앞에 끼어든 운전자에게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추돌사고를 일으킨 가장의 일화가 담겨있다. 그는 끼어들기를 당했다는 생각 하나로 거리를 바짝 좁혀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와 경쟁하듯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위협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그를 제외한 일가족이 모두 즉사하고 말았다. 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을까?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비워 버리지 못했을까?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 바로 “나”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별의별 것들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 화가 나도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여 신줏단지 모시듯 고이 마음속에 두고 있다. 화병을 만든다. 골치 아픈 일이 생겨도 내 것이라 착각하여 만성 두통이 생긴다. 욕심 또한 마찬가지다. 남들보다 잘 살고 싶고, 잘 나가고 싶은 생각이 내 것이라 착각하여 부정적인 일을 서슴지 않게 하며 스스로 파멸의 길로 몰아붙이기도 한다.

저자는 생각을 선택하라 말하며 그 선택이 운명을 만든다고 말한다. 혹자는 이를 냉소적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이미 형편없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이다. 그러한 말들도 일리가 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매 순간 생각을 선택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편없고 비참한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경제적인 상황인가? 수천을 버는 이도 자신이 수억을 버는 주변 사람들보다 별이가 좋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직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주변 사람에게 질투하며 인생을 부정적으로 허비하기도 한다.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인가? 루게릭병을 앓던 스티븐 호킹은 말하는 능력도 잃어버리고 교통사고까지 당해 팔다리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쳤다. 그의 담당 의사는 그에게 20대 초반에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그는 죽음에



충청시설단
9급 이지혜

가까운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던 욕심을 버리고 하고 싶은 일만 하다 죽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후 하고 싶었던 일인 연구에 매진하였고 세계적인 우주 물리학자가 되었다. 상황은 언제나 객관적으로 일어난다. 앞서 말했던 수천을 버는 상황은 수백을 버는 상황도, 수억을 버는 상황도 아니다. 스티븐 호킹도 그렇다. 그가 루게릭병을 앓고 있으며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생각을 하든 변하는 것이다. 이렇듯 상황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다. 따라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부정적인 상황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 또한 금세 바뀔 수 있다. 책을 읽은 후 나는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새로운 환경에 스트레스를 쉽게 받고, 실수 하나 저지르면 속상해하며 그런 일에 대해 곱씹곤 하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제야 내가 얼마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생각을 얼키설키 얽어놓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나간 일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만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마음을 비우는 일은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조금씩 노력한다면 나의 인생이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차리라 생각하며 글을 맺는다.

『마음의 온도』를 읽고

이 책은 법정 스님의 주옥같은 말씀들을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다. 삶에 치이고 나 자신이 느슨해졌다고 느낄 때, 나는 어머니께서 선물해주신 이 책을 읽곤 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귀로 들으면 다 아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늘 잊고 지내게 된다. 나 또한 그렇다. 그 때문에 무언가를 깊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책을 읽은 시간을 헛되게 남기지 않으려면 읽은 내용을 자기의 내면에서 현실로 꼬집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다시 쓰고 말하면서, 복습하듯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다.

책의 모든 구절이 하나하나 소중한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말이 없지만 그중 내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과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보았다.

“얼마만큼 많이 알고있느냐는 것은 대단한 일이 못된다.

아는 것을 어떻게 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많이 안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는 것을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나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아는 것을 활용하는데 부지런한 노력과 열정을 쏟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식을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똑같이 공부해도 시험에서 성적이 다른 것과 같은 이유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활용 정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항상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무엇인가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누구나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바란다.

그러나 그 안정과 편안함이란 무엇인가. 타성의 높ियो, 함정일 수 있다.

그 안정과 편안함의 높에 갇히게 되면 창공으로 드높이 날아올라야 할 날개가 접혀지고 만다.”

안정된 삶, 편안한 삶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그래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심지어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서슴없이 하는 예도 있다. 하지만 막상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한 예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서 일부는 몇 년 후, 도박과 빚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삶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사람은 나태함에 빠져들기 쉽고, 나태함은 점점 타성에 젖어 들게 하여 그릇되고 고착화된 습관으로 인해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이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시설단
중위 김민규

“길어 놓은 물보다 새로 길은 물이라야 차 맛이 새롭다.

차 맛은 곧 물맛에 이어지기 때문이다.”

새집, 새 옷, 새 자동차 등 새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준다. 새것은 때가 묻지 않고, 깨끗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새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치스럽고, 험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적당한 선을 지킨다면 어떨까? 먼저 물질적인 측면에서 금전적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자기관리(미용, 옷, 취미, 공부 등)를 하는 것은 자기 어필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타인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물질적인 측면 이외의 것으로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늘 하는 일이지만,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편할 수는 있지만 좋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공부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지만, 흐르는 물은 항상 새로운 물을 들어오며 나아가게 된다. 자신이 하는 일에 좋은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움을 찾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옥같은 말들이 더 있지만, 나머지는 이 책을 직접 읽으며 느껴보면 좋을 거 같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좋은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순간만 읽고 지나쳐 버리면 무소용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보관하고 다시 보면서 소리 내서 말하고 하면 할수록 내 것이 된다.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자신이 형편없다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수많은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내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삶에 직접적으로 실천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보니, 좋은 책은 좋은 삶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아지는 유익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방시설본부
Defense Installations Agency

GREAT Engineer!

발행일 2023년 5월(Vol. 39)
발행처 국방시설본부
편집장 기획지원부 기획조정과장 대령 박정순
편집위원 기획지원부 기획조정과 공보정훈담당 대위 한송이
출판심의위원 중령 김동신, 중령 김국주, 4급 김진대, 4급 김우태
홈페이지 www.dia.mil.kr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M23050368)

* 본 지면에 게재된 글들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